



문화매일



제 1417호

2023/7/3/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 후, 대곡-소사 개통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0일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

롭게 완성되어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취임 1년 맞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다시 찾은 김동연 “집중호우·폭염 대비 도민 안전 위해 만반의 준비 해달라”

김 지사 “빈틈없는 예방대책과 신속한 복구 이뤄져야.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재난대비 대응태세 긴급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많은 비와 태풍,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세우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재난은 서민이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외'를 예로 들며 “소설 속 의사 '리외'는 문제 해결의 본질은 성실함이며, 성실함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라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소방관의 본질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가 바로 소방관이며, 저 역시 소방에 신뢰와 믿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라며,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따라 비상상황실 운영 및 실시간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지성 호우 시 해당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이 즉시 본부 119상황실과 본서에 상황전파를 하는 소방력을 이동 배치하는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신고접수대를 60대에서 141대 늘린 최대 20대를 운영하고, 상황실 인원은 평소 50여 명에서 최대 173명을 보강해 220여 명까지 늘린다. 119신고 폭주로 연결되지 않은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 내근 비상 근무자를 투입해 신고자에게 신속히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call back)도 운영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79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시행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순찰 강화 및 신속 인명구조 태세도 확립했다.

폭염 대비 소방 안전대책으로는 도민의 물놀이 안전사고와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고 하천 등 25개소에 119시 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9월 말까지 각종 폭염 대비 물품을 갖춘 폭염구급차 276대와 예비 출동대인 펌프리스 261대를 운영한다. 또 불법 제거 등 도민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용소방대 생활 안전대를 운영해 취약 계층과 축산농가에 급수 지원도 한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에는 김동연 지사와 조 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35개 소방서장, 연세찬 도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연 이유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키고 지난 1년을 돌아보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집중호우로 취임식을 생략하고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해 점검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GBDC 토크콘서트 개최

MZ세대 직원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이재혁 사장, “이번 행사가 조직의 원활한 소통 일조해 활기차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9일 공사 1층 대강당에서 'GBDC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CEO와 MZ세대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혁 사장은 취임 이후 4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니어보드(청년총회의)를 구성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차세대 관리자 육성 및 경직된 업무 분위기 쇄신에 힘써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주니어보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장과 주니어보드의 소통활동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처음 MZ세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이재혁 사장을 비롯해 근속연수 5년 이하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공감플러스’ OOO 진행자의 사회로 아이스브레이킹, 뉴퀴즈온더 GBDC, 무엇이든 물어보살, 돌직구 오픈대화방 등이 진행됐다.

이재혁 사장은 “오늘 토크콘서트에서 젊은 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우리 공사에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행사가 조직의 원활한 소통에 일조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

남산·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 주변의 중요 경관 보호지역은 고도지구 유지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km²)를 지정·관리 중이다.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여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도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 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본격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며 전문가, 자치구와 논의를 통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km²)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산과 구기.평창 지역은 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9.23km²)를 6개소(7.06km²)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대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단화) 방지를 위해 '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되어 지정목적이 상실됐다.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운수산업단지 내 서울지역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운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초구 '법원대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검찰청 등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지정목적이 상실됐다.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운수산업단지 내 서울지역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운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12m이하), 제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km²)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한다.

더불어, 중요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관리한다.

지구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하여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노스카이라인과 연계하여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자 디지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한 일률적 높이규제로 도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75m, 120m, 170m 이하)하여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특히,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징경관인 점을 고려하여 한남대교·녹사평대로·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 본 모습이나, 소월로·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 등 다각도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



지구는 '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안)은 북한산으로의 열린경관 확보를 위해 ▲장대한 입면 지양, ▲북한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북한산 방향 주요 가로변 저층 배치 및 건축물 후퇴 구간 설정 등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여 북한산·북한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 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km²)

최광수/기자

대구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 각각 선출해

대구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고, 예결위에서 이재숙 의원(동구4)을 위원장으로, 김태우 의원(수성구5)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숙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결산위원들과 깊이 고민해 시민의 뜻과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시의회에 제출되는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게 된다.

참고로 이재숙 위원장(여, 55세)은 대구시 동구위원으로 제6, 7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동구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김태우 부위원장(남, 49세)은 대구시 수성구 의원,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담당기위원, 대구권협회의 회원 등을 역임했다.

윤근수기자



제9대 청송군의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권태준 청송군의의회 의장,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돌아 보고, 남은 임기동안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청송군의의회는 "지난해 군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9대 청송군의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제9대 청송군의의회는 지난해인 2022년 7월 1일 등원 이후 정례회 3회와 임시회 7회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포괄적·점진적 현대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TP)기반 반대 결의안 외 1건의 대정부 결의안과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다양한 현안과 숙원 사업 그리고 민생 위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군민 편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9대 청송군의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 대안 개발, 의원 역량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군민

행복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뿌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지방자치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행보를 펼쳐가고 있다.

의회 회기 운영 외에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총 8회 실시하였으며, ▶국도비공모사업 신청현황 ▶항공사과연구단지일일 국공유지 매입추진 ▶청송 공공인대주택 건립사업추진계획 ▶진보지역 공공 장례식장건립 추진계획 등 군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 군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의 편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권태준 청송군의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으로 잃지 않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원부와 주관으로 개최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 없어질 뻔한 aT센터 앞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유턴 구간 살려냈다.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28일 제 319회 본회의에서 현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유턴구간 존치 청원의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지역 주민 809명의 청원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통과됐다.

현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에 포함된 영곡사거리 일대는 우회전하여 과천 또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로 진입하는 다수의 광역버스와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서울시 대표 상습정체 지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현행로 연결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고 가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광역·간선·지선 버스정류장을 중앙으로 통합 예정이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이 모두 중앙차선으로 이동할 경우 양재동 주민들의 버스이용 환경은 더욱 불편해지고, 양재2동으로의 유턴이 폐지되어 지역의 접근성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 809명과 함께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조정, 양재지역 주민을 위한 aT센터 앞 기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유턴구역을 존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을 발의하게 되었다.

최 의원은 청원소개를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

행로 일대 강남대로 구간에 중앙 버스 전용차로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계획한 대로 aT센터 앞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배치할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T센터 교차로 앞 유턴을 폐지할 경우 기존 유턴을 이용하던 인근 양재동 주민들은 우회 거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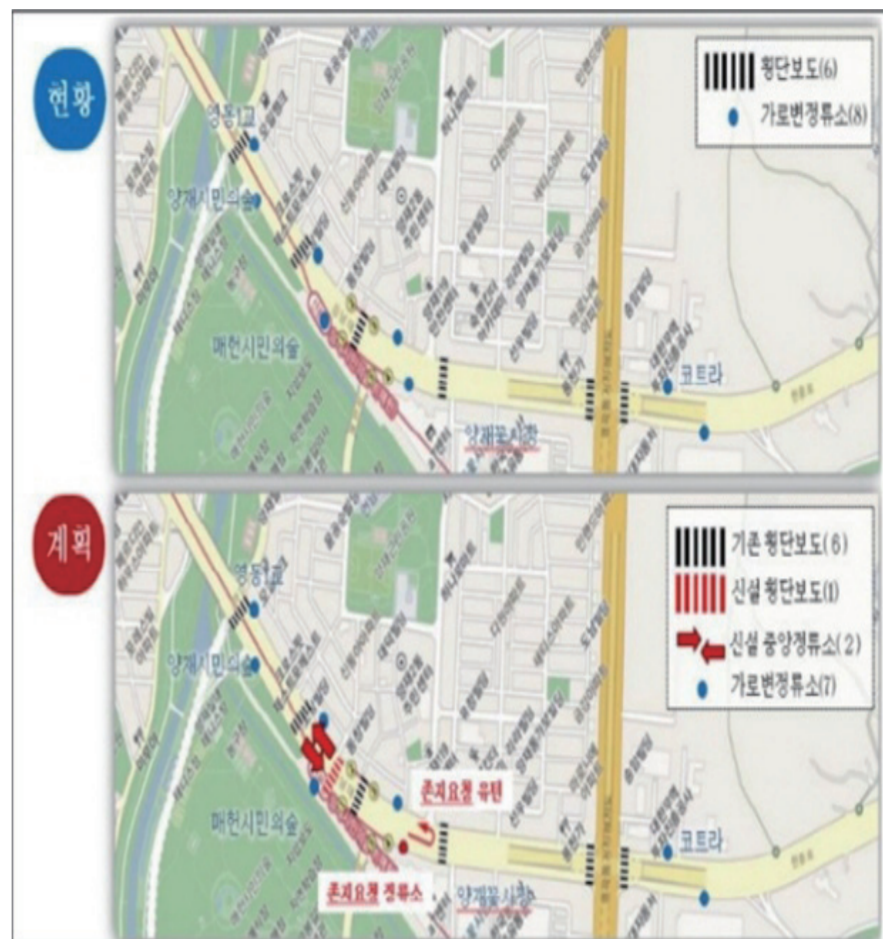
청원이 통과되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는 발 빠르게 수용의사를 밝히고 대책강구에 나섰다.

먼저, aT센터 앞 교차로 유턴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실의를 통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가로변 정류소 존치 시키고 해당 버스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청원 통과 이후 신속하게 대응방안 마련해 서울시에 감사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영곡사거리에서 양재 IC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 서울시가 광역버스 노선조정·감축 등의 대안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추가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최호정 서울시의원, 없어질 뻔한 aT센터 앞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유턴 구간 살려냈다.



충남도의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위촉식 개최

신규연임 등 18명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도민과 의회 가교역할 기대"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원부와 주관으로 개최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형민 교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요는 감소할 전망으로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육구를 잘 파악해 이에 맞는 어린이집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보육 지원을 새로운 인구 추계와 요구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탄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육아정책연

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어린이집 유형 간 급식비 차등 지원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화의 균형을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부모 교육,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인단체분과위원회 김세희 위원장님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함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재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채널A 신선

미 기자님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 수납한도액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 차이 개선을 위해 수납액 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공립분과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님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보호권 보장을 위해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장애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장애보육도우미 배치, 조리원과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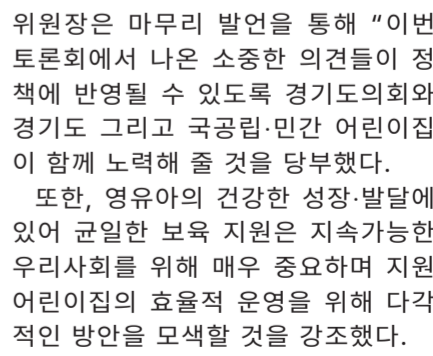
이런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성란 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균일한 보육 지원은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원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민선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획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획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 램리서치, 도코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회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코요미(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주)그리너자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정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과,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희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대화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를 주한 독일 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23.2.), 아미 쿠마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장(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를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 투자: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10조 원의 투자유치 달성
- 기후: '경기 RE100' 선포하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 나서
- 글로벌: 해외 주요 국가 대사와 고위층이 경기도 찾으며 경제교류 협력 강화
- 청년: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캠퍼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해 벼랑 끝에 몰린 1,841 위기가구 지원



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 버펄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캠퍼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도민 등 어학 19종, 한국어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

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내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선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리집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 이를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각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안정 지원금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내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선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리집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 이를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각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만식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어 가겠다"

취임 1주년 맞은 이재준 시장, 변화와 성과 소개하고 새로운 수원 비전 제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의 꿈이 실현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6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민선 8기 수원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 아래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정책 철학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아이와 청소년, 청년과 중년,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꿈이 실현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성과로는 에스디바이오센서(주) 등 3개 첨단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될 '수원새빛기업펀드', 통합돌봄 서비스 '수원새빛돌봄', 혁신민원실로 주목받는 '새빛민원실', 수원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출시 등을 소개했다.

또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경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조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꿈이자 희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

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효원고 사거리에서 수원남부경찰서서모범안전자회와 함께 하는 교통안전봉사로 취임 1주년을 시작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었다. 전통문화예술 레이브 '형류'의 퓨전 국악공연으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기념사, 민선 8기 자랑스러운 수원 시민상 시상, 시민과의 대화, 경주소녀소년 합창단-경기대응원단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은 이재준 시장과 시민 800여 명이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최만식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대폭 증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00대에서 추가 50대 증차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총 15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고객을 택시로 모시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50대를 추가 증차하면서 이용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

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후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의 증차 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바우처택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택시 증차를 위해 30일 미르스타디움에서 바우처택시 소양교육 및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최만식기자

화성시, '2023고객신뢰도1위 프리미엄 브랜드' 행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화성시가 29일 '2023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는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는 소비자전문가 집단이 분야별 브랜드 신뢰도를 평가해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업과 지자체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이다.

시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시정구호로 삼아 '균형 혁신 기획'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혁신에 매진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전국 최초 사례인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 실시간으로 도로위

험요소를 수집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시 기반 디지털도로시스템', ▲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도입 등도 수상에 기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선 8기 중점 가치인 '혁신'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실천한 결과"라며, "100만 시민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 수상 외에도,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이어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양시현기자



민선8기 1주년 맞은 윤경희 청송군수, “군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약 이뤄내겠다”

윤경희 군수! 윤 군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일을 추진한다. 그는 리더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유유부단함으로는 결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그는 오로지 ‘청송의 발전과 청송군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주저함이 없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인접 시·군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시원시원 업무추진력에 매료될 정도로 그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평이 나갔다.

이런 윤경희 군수가 어느덧 민선8기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온 청송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군정 운영방향에 하나하나 살펴 봤다.

잘알다시피, 군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일은 공약 이행에서 시작된다. 윤 군수는 지난 1년 전 취임식에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낮은 자세로 누구와 언제라도 소통하며 청송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듯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이하여 내놓은 윤경희 청송군수의 청송발전 프로젝트의 새로운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윤경희 군수는 ‘새롭게 피어나는 미래농촌’, ‘발맞춰 함께하는 나눔복지’, ‘문화로 미소짓는 상생경제’를 군정목표로 내세운 뒤, 각 부서에 공약사업 검토를 지시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73건의 민선 8기 공약은 ‘농업 시스템 혁신’, ‘일지리를 창출하는 관광 기반 구축’, ‘청정 도시 환경 조성’, ‘하나되는 보편적 복지 실

현’, ‘소통과 협치의 공감 행정’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비롯한 13개 공약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경희 군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 시스템 혁신이다.

청송사과는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 선정되었다. 소비자들은 청송사과를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생각하고 있지만,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과 명성을 이어가려면 품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약 6만톤 정도이고 전국 생산량은 56만 톤에 이른다. 사과 소비량 감소와 함께, 청송군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강원도에 비해 본격적으로 사과가 생산되면 생산량 증가로 사과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윤경희 군수는 늘어나는 사과 생산량 속에서 청송사과 브랜드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송사과 시장을 국내에서만 찾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 청송군이 집중하는 해외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다.

경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동남아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한류 열풍으로 한국과 관련된 물품에 신뢰와 소비욕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 청송사과 300톤 수출 쿼터 승인을 얻어냈다. 사과주스는 5년간 무제한으로 수출한다. 6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사과는 30톤, 사과주스는 15톤에 달하고 수출된 청송사과는 인도네시아 현지 롯데마트, 헤르그룹, GS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필리핀 현지 대형 유통업체 디존팜과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11톤

을 수출하기도 했다.

청송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청송사과 수출량을 1만 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1만 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올 3월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생산품에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수출용 청송사과 명칭을 K-애플로 바꾼 새 포장재를 개발 하였으며, 청송사과 수출 촉진 자금과 글로벌 GAP 인증 농가 출자 지원 장려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와 재료비는 절감되고 품질과 생산성은 높은 미래형 과원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형 과원 조성 모범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센터 운영을 통한 과학적인 품질검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였다. 또한, 청송 황금사과 기술혁신관과 우량대목 전문 육성센터를 갖춘 청송 황금사과 연구 단지를 이룬 시일내 완공해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송사과는 매년 서리와 냉해 피해를 상습적으로 받아 농가에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군과 농가가 부담하는 재해 피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세살수장치 보조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과수 생산구조 혁신을 이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윤경희 군수의 노력은 확연히 눈에 띈다.

청송군은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대중교통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든 청송군을 향해 언론과 타 지자체

가 놀라움과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요금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과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청송군처럼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청송을 방문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요금 무료화로 얻는 편익은 생각보다 크다.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군민 누구나 교통비 걱정 없이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장을 보고, 목욕탕을 가고, 병원에 가면서 버스 이용자가 25%까지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버스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사는 승객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무료버스 운행은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 1km를 이동할 때 승용차는 210g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버스는 27g을 배출한다. 보기 드물게 맑고 건강에 좋은 공기로 유명한 청송군의 공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더 맑아질 것이다.

청송군은 노인인구가 40%가 넘는다. 군민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 해 왔지만 늘 아쉬움이 있었다. 형광등을 갈아야 할 때, 배수구가 막히고 현관문이 고장 나면 연로한 어르신이 직접 수리하기 어려워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이나 친척이 방문할 때까지 불편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특히, 생활민원 처리의 보배인 ‘8282 민원처리 기동반 활동’이다. 주민이 전화만 하면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해 형광등을 갈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막힌 배관을 뚫어 준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기동반은 1,395가구 이상이 이용하여 3,534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군민에게 좋은 호응

을 얻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1년 동안 청송의 도시 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이다.

삼자현 터널 개통으로 산남지역과 청송, 진보는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고 더 많은 관광객이 청송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읍 중앙로와 금월로의 전신주와 전선이 없어지면서 도로는 넓어지고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졌다. 진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국비를 더 확보해 부남과 산남지역의 전선과 전신주도 없앨 계획이다.

이 밖에 청송군 주민의 생활환경을 바꿀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곡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무엇보다 더러지구 정비를 위한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180억 확보가 눈에 띈다.

더러지구에는 주택가 옆에 개 3,000마리, 소와 염소를 키우는 견사와 축사 19동이 있다. 오랫동안 흉물스러운 견사와 도시미관을 해쳤고 가축의 배변이 땅과 하천을 오염시켜 왔으며, 견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 받았다.

윤경희 군수는 사업비 180억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견사와 축사를 조속한 기간 내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부지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스마트팜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고무적인 건, 군민 삶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이다.

소상공인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청송사랑화폐 유통 규모를 700억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청송사과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50만 명을 넘기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재인증에 성공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가운데 하나인 주산지는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안타깝게도 왕버들이 고사하면서 옛 풍광을 많이 잃고 있다. 청송군은 반변천에 서식하는 왕버들 18주를 11월 중에 이식해 주산지 옛 경관을 회복할 계획이다. 왕버들이 복원되고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많은 관광객이 주산지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과 수출로 농가가 부유해지고, 무료버스와 8282 민원처리 기동반과 같은 정책으로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지역 주민의 행복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청송으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오늘 10시에 민선8기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어 11시에 민선8기 1주년 사업성과 ‘언론인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산소카페 청송군! 이곳을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솟게 만드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청송군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더욱 빛을 발해, 항상 실기 좋고 머무르고 싶고 찾아 오고 싶은 청송군으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본다.

윤군수/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구미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이 충족하면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되는 주택은 구미지역 총 21호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및 심터퇴소청소년, 수급자 청년에게 우선 공급되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내용은 30일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 주택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7.11.~7.17까지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청년 입주자 모집

공급지역: 구미시 (봉곡동, 거외동)
 공고일: 2023. 6. 30.(금)
 접수기간: 2023. 7. 11.(화) ~ 7. 17.(일) 등기우편
 공고번호: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gbdc.co.kr) 054) 650-3116
 문의: 054) 650-3116
 신청자격: 무주택자 미혼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임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자세한 자격 등 요건은 공고문 참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 투자유치 초록 불

세계적 기술기업, 방산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 투자협약 체결 박형준 시장, “지속적인 혁신 속에 ‘기업 하기 좋은 부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부산시는 지난 달 30일 오후 3시 30분,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첨단기술 강소기업인 효성전기(주), (주)자이언텍, (주)에이트원 3개 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효성전기(주) 김원태 사장, (주)자이언텍 최광일 대표이사, (주)에이트원 이진업 대표이사와 기업 임직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효성전기(주)는 1973년 창업 이래 50년 이상 자동차용 소형모터, 기어, 배터리 등 부품을 개발한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주력 생산품인 블로어 모터(송풍기, 히터/에어컨에 바람을 불어주는 기능)는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60%를 15개국 40여 개 사에 수출하고 있다.

기업은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장화 추세 등 미래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사업장을 축소하고 부산에 신규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동남권 방산선과과학산단에 5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구축하고 신규로 15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세계 1위 자동차 블로어(Blower) 모터 회사로 확고히 자리 잡고,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용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자이언텍은 2012년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인 허브베어링(휠 베어링)으로도 불리며, 자동차가 구동할 때 바퀴 축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충격과 차량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 이다.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으로,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기업은 강서구에 소재한 본사 인근에 161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구축하고 신규로 30여 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장에서는 세계적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제공하는 부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열처리 설비 도입으로 소재부터 가공까지 일괄(One-stop) 공정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여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가속화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에이트원은 지능형(스마트) 국방 분야에서 가상 훈련 시스템 개발 및 해결책(솔루션) 제공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확장현실(XR) 기술 확산을 바탕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수도권 전문인력 수급난을 해소할 새로운 거점으로 부산을 선택했다.

기업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본사를 부산시 강서구로 이전하며, 138억 원을 투자하고 2026년까지 5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교육·관광·실감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등 신규 사업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한국 1위, 세계 19위의 지능형(스마트)도시로 혁신 속에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할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비롯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사업,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적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 세계의 기업들이 찾아오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종진/기자



경북 영주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

박남서 영주시장 “인명 피해 포함 피해 입은 분들에 위로” 국지성 집중호우 지속 예상...산사태 예방 등 총력 대응 지시

경북 영주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29일 오후 5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실국장과 19개 읍면동장, 13개 협업부서장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상황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교량 붕괴현장과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박 시장은 ▲피해 현황 신속 파악 및 복구 현황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하천변 등 상습 침수지 피해 및 현황 ▲농작물 피해 규모 및 방제대책 ▲산사태 우려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을 지시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폭우에 따른 토사유출이 주택붕괴로 이어져 사망자 발생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인명 피해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지성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사망동 및 면단위 산사태 취약지역, 시가지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피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기준 이틀 동안 최대 3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30명의 긴급대피자, 즉시 복구가 불가한 피해(교량 파손 1개소, 산사태 피해(우려) 14개소, 주택 매몰 5개소, 주택 침수 31개소, 도로유실 13개소, 하천 재방 유실 5개소, 차량피해 7대, 농작물 침수피해 81농가 56ha 등)가 발생했다.

시는 주말 동안 피해지역 정밀조사와 신속한 복구지원, 산사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7개 해수욕장, 7월 14일 일제히 개장

안전사고 제로, 쾌적한 힐링 해수욕장으로 기대감 ‘Up’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등 군 전역 7개 해수욕장이 내달 14일에 일제히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8일간이며, 성수기는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 비수기는 7월 14일부터 7월 21일과 8월 7일부터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고래불 비치사커대회(8월 5~6일), 장사해변 라디오(개장기간 중 주말), 여름해변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의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영덕군은 올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내 7개 해수욕장에 수상인명구조요원 12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인명구조요원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수상안전훈련을 시행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희 부군수는 “지역을 찾아오신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김주수 의성군수, “청년이 창농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교육 단계별로 추진, 딸기 스마트팜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 할 수 있게 최선 노력”밝혀

의성군은 창농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올해로 5기를 맞이하는 이번 교육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의 기본 이론과 특화된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으로 2019년부터 의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의성군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될 시 15일 이내로 의성군 전입을 필수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지원한다.

교육은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진행되며, 이론교육은 주 1회(4시간) 총 200시간, 실습교육은 주 12시간 총 600시간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 수요생에게는 스마트 온실 설치를 지원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교육 신청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054-862-2469)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6억원을 투입하여 3.5ha 규모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교육장

은 조성하여,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스마트팜 창업교육을 추진한 결과 70명의 딸기 전문가 배출하고 그중 40명은 의성에서 정착 및 창농하여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이 창농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딸기 스마트팜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계향과 함께하는 군자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오도창 영양군수, “결혼이민여성들이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음식디미방 조리체험으로 우리 음식의 우수성과 음식문화를 이해 기회가 되길”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목)과 29일(목), 2회에 걸쳐 영양군다문화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석보 두들미를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에서 “장계향과 함께하는 군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군자 장계향의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영우(장계향연구회 전회장) 강사를 초빙하여 군자의 정자 명상과 두들미를 장계향의 흔적을 찾아 이야기 나누고 지역 문화의 이해 및 문화 자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석보두들미를 고택탐방, 주렁구만 들기, 음식디미방 조리체험(착면법), 장계향 군자 교육, 만다라 그리기, 소부상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양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음식디미방 조리체험을 통해 우리 음식의 우수성과 음식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교통공사, 「슬로건(Slogan) 공모전」 개최

7월 3일(월) ~ 30일(일)까지 접수, 최우수상 등 6편 수상작에 총상금 100만 원

대구교통공사는 시민중심의 종합교통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종합교통기관 도약을 위한 비전(Vision) 및 핵심가치' 등을 함축한 문구이며, 응모 기간은 오늘 3일(월)부터 30일(일)까지이다.

응모된 슬로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6편의 선정작을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 1명에게는 시상금 3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각 20만 원, 장려 3명에게는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슬로건은 공사 마케팅

과 브랜딩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또는 역사에 게시된 공모전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구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종합교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MaaS(통합이동서비스),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겠다"라며 "슬로건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교통공사 DTRO

DTRO의 종합교통기관 도약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

23. 7. 3.(월) ~ 7. 30.(일)

공모주제
· 대구교통공사의 종합교통기관 도약을 위한 슬로건
· 비전(Vision) 및 핵심가치 등을 내포하는 함축적인 슬로건

공모기간
· 7월 3일부터 30일까지(휴일 포함)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또는 대구교통공사 고객센터(053-640-2127)를 통해 접수

공모대상
· 15세 이상의 성인과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개인(단체) 1명당 1편의 응모 가능하며, 중복 응모 불가
· 접수 방식에 정부인 심사기준, 심사 결과 연락 받을 것

공모방법
· 공모기간: 2023. 7. 3.(월) ~ 7. 30.(일)
· 공모대상: 2023. 9월 중

공모자격
· 국민 누구나

공모심사
· 총 상금 100만원 및 대구교통공사정장(총 6편)
· 최우수상 1명(대구교통공사정장, 시상금 30만원)
· 우수상 2명(대구교통공사정장, 시상금 20만원)
· 장려상 3명(대구교통공사정장, 시상금 10만원)
· 시상금: 은·동·장려상과 장려(지류)등도 포함

입수방법
·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한 접수
· URL: <https://forms.gle/3kTrAdNQYksdVzR2>
· QR코드 스캔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에서 클릭 및 알림단에서 해당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

문의사항: 053-640-2127(대구교통공사 기획조정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시니어여성리더특강

초고령 사회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지방시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경북 시니어 여성 리더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경북 6080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와 초고령 사회인 경북도에서 '백세시대 시니어 여성리더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향후 미래사회 경제상황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삶의 질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진단했다.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病)에 있다"라며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를 부르고 저출산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백세시대 여성리더의 역할"로 65세 남녀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로 여성의 수명이 길어 여초사회는 더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힘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여성들의 강점인 협력·소통·공감능력과 섬세함, 사고의 유연성 등이 조직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빛낸 역사 속에는 여성 리더들의 선한 영향력과 헌신이 있었다"면서 "경북 시니어 여성리더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재능, 경험을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 큰 활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며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한울3호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박범수 본부장, "이번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방사선 비상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다양한 대처능력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달 29일, 한울 3호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2년마다 부지별 로 실시하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 중 만일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사고를 초기에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훈련은 지자체, 유관기관 및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의 형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학원 관계자들의 점검하에

시행하였고 비상계획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비상요원 소집,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이동형 발전차를 이용한 전원복구, 오염환자 의료구호 훈련, 발전소 종사자 대피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박범수 본부장은 "금번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신속한 비상 대응조직 가동, 발전소 비상상황 대처, 상황전파, 종사자 및 주민보호 조치권고 등 방사선 비상 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대처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훈련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협약 맺고 여성리더 키운다

이재혁 사장, "여성이 역량 발휘 많은 기회,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과 '경상북도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리더를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직원과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여직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지원정책을 나서게 되었다.

이번 협약서에는 ▲경상북도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경상북도 여성 리더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 행사 참여 및 협조 등이 있다.

공사는 그 간 해오던 직장교육에서 나아가 여성리더 육성과 인재풀 확대를 위해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 프로그램으로 정교하게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기관은 법 기준이나 비용, 장소 문제로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인근 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직장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여성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민선 8기 1주년 "오도창 영양군수"

미래먹거리 마련, 지속가능한 영양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출범한 민선 8기 오도창 군수의 취임이 1년을 맞았다. 오 군수는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이라는 군정 목표로 지난 1년 동안 민선 8기 군정운영 추진 방향의 초석을 마련했고,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영양 곳곳을 누비며 군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

먼저, 지난 1년간 오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행정력과 군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법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양군의 생존의지를 천명했으며, 흉고추 최고가격 보장제,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경감, 농민수당 지급 등으로 마음 편히 농사짓는 농업 환경을

조성했고, 도시재생사업, 새마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했다.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마령산해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영양을 관문도로 4차선 도로 개설 등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교통인프라의 확충으로 내·외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차별화된 영양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지 명품화 사업,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 국제박람회 보호공원 별빛생태관광 명품화 사업 등의 추진으로 관광 콘텐츠에 깊이를 더했다.

또한 2022년 핫페스티벌의 성공적

인 개최로 연 매출 30억원을 거뒀으며, 영양 산나물축제는 2023년도 경북 최우수축제로 선정, 12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루어냈다.

민선 8기 1주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영양소방서 건립, 교정시설 유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 유치, 국립림관리소 유치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예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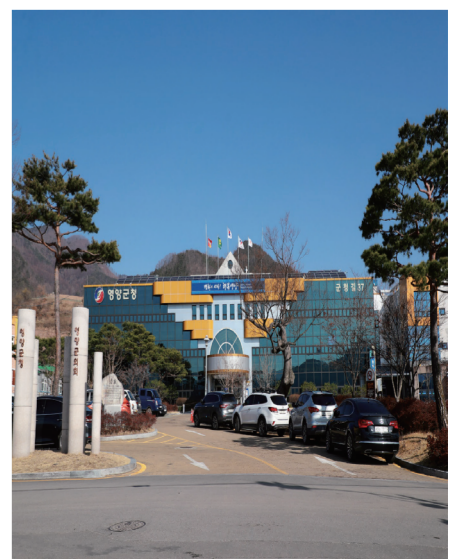
동부리 농촌공간 정비사업, 바대들 주거단지 기반조성사업, 동부천 도심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구현하고, 화매지구 농촌융복합체 재편사업, 업체류 특구 지정 및 전문단

지 조성, 업체류 간이 집하장 신축, 남부권 농촌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한층 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동서철도망 구축, 국도 31호선 영양진입구간 터널화사업으로 교통망에 대한 군민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양 자작나무 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자작나무 숲체원 유치, 장구메기습지 보호습지 지정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메카, 영양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저에게는 군민의 지엄한 명령이자 군정의 목표인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의 완성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민선 8기의 남은 시간은 3년이지만, 영양군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 드라이브!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선제적 추진, 교육 희망 경쟁 치열

경북도는 30일 구미코 대회의실에서 '경북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도의원, 구미시장, 구미시의원, 지역대학 총장,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이철우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경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산업은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출범식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이 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관계기관장 및 지역 청년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경북 반도체 초격차"를 외치면서 경북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구미 반도체)' 지정 시 인력 확보와 지역 반도체 산업현장 인력 수요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전문인력 2만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인력 지원 △반도체 전공 실습과정 공유를 통한 대학의 역량 강화와 특성화고 대상 반도체 공정 교육 확대를 위한 특화인재 양성 △대학 석·박사 및 기업 재직자 R&D 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 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기간 및 교육생 모집은 연중 진행하며 교육 참여 희망자는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영남대 산학협력단 및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영남대는 교육대상자 모집공고 결과 160명 모집에 240여명이 몰려 경쟁이 치열했으며, 대구가톨릭대는 경주공고와 지난 6월 업무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80여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북대에서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신청

지)를 중심으로 고급인력 확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반도체 수요증가에 맞춰 첨단 반도체산업을 지역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구미 반도체)'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지정된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갖춘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

로 지정돼야 국가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쟁이며 국가총력전 이라고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가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감자신품종 '골든에그' 품평회 열어

봉화군과 봉화청정작목반, 주식회사 이그린글로벌은 6월 29일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서 골든에그 감자신품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골든에그(Golden Egg)' 감자는 국립종자원에서 개발한 국내 토종 품종으로서, 모양이 길쭉하고 육색이 진한 노란색을 띠는 특징이 있으며 프렌치프라이 등 가공에 특화되어 앞으로 시장성이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품종이다.

신기준 EGG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수미, 대지 같은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시장에 골든에그 같은 특장점이 뚜렷한 신품종을 알리고 동시에 EGG의 빠른 시장대응력과 고품질 씨감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를 가져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장조사를 통해 봉화군 및 국내 감자농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품종평가회는 지난해 말 봉화군, 봉화청정작목반과 EGG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EGG가 생산한 최상위 단계 골든에그품종 무병씨감자를 올해 봄에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일원에 봉화청정작목반이 직접 파종, 재배해 수확한 감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EGG와 봉화군, 봉화청정작목반이 협력해 훌륭한 재배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내 감자시장의 성장과 봉화군 농가 및 EGG의 동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선형 강우로 인한 지반약화 및 산사태 우려 지역 긴급 점검

경남도는 장마시작과 함께 연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했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평균 182.3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 재해예방사업장, 소화전, 급경사지 등에 지반이 약화되어 있다. 또한, 27일과 28일 사이 평균 강우량이 87.7mm로 기록되며 이번 장마 시작 이후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 남부지방의 경우 30~80mm의 강한 비가 추가로 예보됨에 따라 경남도는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선형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마산회원구 내서

읍 호계리 일원 등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 지역 4곳에 대하여 30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 관련부서와 해당 시군에 "산사태 우려지역, 산단옹벽, 석축, 급경사지, 하천, 도로사면, 급경사지 및 저수지, 외딴곳 펜션, 개발행위(불법지 포함)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담당자에게 "주거지 인근 지역 나무 전도, 땅 밀림, 토사 유실 등 위험징후가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산사태 등 붕괴 우려가 예견될 경우 일선 책임관, 경찰, 소방 등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하며 인명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재현/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전국 최대규모,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

전국 사회적경제 주요 인사와 관계자, 방문객 등 5만여 명 이상 참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과 이승우 의원, 배영숙 의원은 벅스코에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인부산(IN BUSAN) 행사'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자

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민간 공동 박람회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별 사회적경제정책과 연계 행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경제 축제이다.

부산 사회적경제라서 좋다(Busan 사회적경제 is good)'라는 표어(슬로건)로 개최되는 행사로 ▲ '개·폐막식' ▲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공공·민간 컨설팅을 위한 '상품관' ▲ 중앙부처 및 부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등을 소개하는 '정책홍보관' ▲ 학술·정책·토론 등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 온라인 기획전, 온라인관광(랜선 투어), 찾아가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이 모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로, 국내외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정부, 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기업이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광역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적 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수 사례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더 나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민선 8기 1주년 맞은 박현국 봉화군수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토대 마련”

본예산 기준 최초 5,000억 원 시대 열어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소통과 공감의 청렴 행정 펼쳐



박현국 봉화군수는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군민 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봉화를 되살려 주길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지역 활성화를 통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고장 만들기엔 최선을 다해왔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공식사회에 공정과 상식, 신뢰와 공감의 청렴문화를 불어 넣는 데 힘썼다.

봉화의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이라면 국회, 중앙부처, 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을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본예산 기준 최초 군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등 20여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9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봉화군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분지 취재진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은 박현국 봉화군수의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하나하나 취재했다.

▲ 먼저, 미래형 영농기반 구축으로 부자 농업인 육성이다.

박현국 봉화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봉화군정은 군의 근간인 농업정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존 농업인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일손이 적게 들고, 소득은 높은, 디지털 농업기술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 창업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 발굴,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예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도입을 추진고,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봉화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부자 농촌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다음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업 육성이다.

군 면적의 83%가 산림인 봉화군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1,273ha 규모의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 임가의 경쟁력 강화와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2억 원 규모의 임산물 재배단지 및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했으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인 문수산 산림복지단지는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과 자연에 머물러 갈 수 있는 산림휴양 치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숲속도시 봉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책사업인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현재 공정률 38%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국립봉화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곧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와 봉화 바이오메디 U 시티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반 바이오메디 연구를 통한 기업과 대학 캠퍼스 유치를 통해 봉화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했다.

▲ 셋째 글로벌(glocal) 관광자원 확충으로 오감만족 봉화 구현이다.

봉화군은 관광산업을 농림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과 뜨선시와 우호 강화 협약체결, 덴드 축제 공식 방문으로 한-베 교류 선도도시의 입지를 다진 봉화군은 베트남을 조성사업의 국가 정책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분천산타마을의 국제적 명소화를 위해 관광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노루재 구곡도를 활용한 루지체험장 조성, 명호 범바위 전망대 구축, 백두대간 힐링 팻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자원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한 봉화 은어축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폭증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올해는 더욱 신나고,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 봉화송이축제, 분천산타마을 축제 등도 다채로운 구성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에 힘을 보탬 것이다.

▲ 넷째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다.

봉화군은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인구전략과를 신설해 인구정책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신규 모듈러 주택단지 조성,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4개지구 신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찾아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봉화사랑 주소찾기 운동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전입촉진금 지원, 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가업승계능 정착지원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다섯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행복도시 조성이다.

품격 있는 맞춤 복지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의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모두의 놀이터 조성,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건립을 비롯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여섯번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이다.

쇠락하고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봉화와 춘양의 도시재생사업들은 사전 행정 절차를 밟으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첫 삽을 뜬 이후 하투가 다르게 봉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과 남부9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지도 88호선 선형개량과 지방도 915·918호선 확장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재진이 바라 본, 민선 8기 1년간,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의 초석을 다진 박현국 군수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군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각오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1조 원 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 베트남마를 조성사업 국가정책화 추진 등 봉화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비롯해 그동안 구상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다 나온 봉화, 내일이 있는 봉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민선8기 1주년을 맞이한 박현국 봉화군수의 확신에 찬 각오를 들어 본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면서 “우리앞에 놓여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 베트남마을 조성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기에 소멸 위기 봉화의 ‘제2의 도약’을 위해 허리띠 바짝 조여 매고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북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 기업 투자행렬 기폭제 기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 후, 새만금지역 법인세 감면 혜택 지속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행렬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은 투자진흥지구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국무총리 축사 및 전북도지사의 격려사에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6월28일 지정*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올해 4월 4일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새만금지역 기업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하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핵심인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법인세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된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의결됨에 따

라 큰 고비를 넘었었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또 새만금 전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 향후 새만금산단 외의 지역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이번처럼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적용 기준의 경우 기존 제주, 광주(관광·문화중심)투자진흥지구 대비 대상업종 수를 늘리고, 투자요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은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 등 새만금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는 날개를 달게 돼 새만금이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러시를 가속화하고, 더욱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꿈인 새만금이 결실을 맺기 위해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을 계기로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홍/기자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 선정으로 드론산업 더 높이 비상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남원시 드론산업 기틀 마련



남원시가 도내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서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된다. 앞서 3월에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드론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등 드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관제, 산림, 농업, 관광 분야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멀티드론 실시간 제어 및 관제, 식별장치 및 식별시스템 실증, 산림 예찰 및 방제, 산사태 예측 감지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11월 우석대 산학협력단, (주)서우, 팔네트웍스 등 15개 기관 및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국방부와 공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올해 4월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참여기관 및 기업들과 드론 특별자유

화구역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규제 허파로 드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남원시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남원시가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LX드론활용센터와 연계하여 드론통합관리센터구축,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드론실증단지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10월 FAI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를 성공 개최하여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홍/기자



전남 나주 강소특구 '2023 테크비즈 파트너링' 기술사업화 촉진

특구 3년 차 기술사업화 확산 행사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전남나주 강소개발특구 육성사업단이 에너지신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3년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강소특구 기업 70여곳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테크비즈 파트너링'은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신재생 에너지분야 우수기술 소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또 지역 내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사업을 연계한 다각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 기업의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행사는 한전의 '23년도 기술이전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공공 우수기술 소개', '혁신기관 기업지원사업', '호남권 운용펀드 및 투자유치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12개 기관 부스에서는 기술 교류 활성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기술기획처는 기술이전 및 23년

주요 변경사항과 기술보증기금 기술특례 상장 제도, 에너지기업 상장 추진사례 등을 발표했다.

발표 주제(발표자)는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 방법', '맞춤형 배터리 설계 및 BMS 알고리즘', '아연-브롬 전지를 포함하는 ESS', '무선 전력 송신 장치 및 설계 방법'으로 4개의 공공기관의 우수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한전·전남테크노파크·KENTECH의 기업지원사업과 엔젤투자허브, 기업개발원의 투자 및 사업화 전략도 소개됐다.

김태곤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전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동 R&D, 기업역량 맞춤형 지원과 유망기업 집중육성, 타 강소특구와 협력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나주를 에너지 중심 연구개발특화단지 조성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전남나주 강소특구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기관 간 유대 강화, 공공기술 사업화 확산 및 지역 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함평군-(주)긴트 '맞손'...7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동함평산단에 첨단농업기술 애그리테크 자율주행 스타트업 공장 신축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과 (주)긴트(대표 김용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함께 (주)긴트와 7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솔루션 '플루바 오토', '플루바 케어'를 기반으로 한 농업 첨단 생산기술 개발 업체이다.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주)긴트 김용현 대표, 임세호 이사, 김진호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긴트는 동함평산단

부지(17,573m²)에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생산하는 공장(3,315m²)을 신축한다.

또, 다양한 농기계와 농업용 로봇 등 첨단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 테마 공간인 '플루바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132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지역 인제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에 투자를 결정해 준 (주)긴트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 안전을 부탁해' 홍보 벽화 그리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활동 안전캠페인의 일환으로 완도 신항만 항포구에 4가지 테마의 수상레저 안전활동 홍보 벽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벽화는 자원봉사단체인 해움(완도군 고금면 소재)이유정 대표와 이희순 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됐으며,

벽화에는 수상레저활동 신고·사전점검, 활동 중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근절, 입항 후 화재 예방점검 등 수상레저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벽화가 그려진 신항만 항포구는 일 평균 20~30여대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가 정박하면서 수시로 입·출항을 하는 장소이며, 여름철 많은

낚시객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벽화 홍보활동을 통해 해당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이 되도록 활동자 및 관광객들의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영용/기자



순천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성과 내는 직원 우대'

순천시가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4급 2명, 5급 승진의결 6명, 6급 9명, 7급 13명, 8급 31명 등 총 61명이 승진했고, 전보는 휴직·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초로 직무수행 능력, 그동안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승진자로 결정했다. 특히,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정원박람회 범 업을 일으킨 최영화 자치행정과장을 생태환경센터소장으로, 그동안 시장의 주요 현안을 짚는 패기로운 잘 수행한 김지식 체육산업과장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탁하여 성과 내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전보인사는 공로연수, 휴직 등으로 부족한 인력 여건을 감안해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보 규모를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주산업,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등 전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전환 배치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2부·4팀을 통합하는 등 일부 조직을 재편하고, 시는 국가정원운영과에 정원재개장TF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정원문화의 도심 확산을 준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2023국

제정원박람회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라면서,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직후 조직위원회 파견복귀 인사를 단행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창조한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노후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을 통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 마무리에 집중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살피

돌산읍 진모지구 찾아 방문객 편의·안전 최선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를 찾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박람회장, 화정면 개도, 남면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21년 국제행사 승인 이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돌산읍 진모지구 주행사장에서는 무한한 섬의 가치를 상징하는 무한대 기호 모양으로 구성된 8개 전시관에서 섬의 탄생부터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계기

가 마련된다. 특히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실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부행사장인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국가기념일인 8월 8일 섬의 날 행사, 국제섬포럼, 세계섬도시대회 등 각종 학술대회를 열어 섬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다. 또 화양면 개도와 남면 금오도는 해양레포츠, 가족캠핑, 섬어촌문화센터, 비경길 탐방 등을 통해 섬 전문문화·레저·웰니스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김영록 지사는 "주 행사장을 여수 시민이 활용가능한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섬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섬박람회의 특징을 잘 살려 이번 행사가 섬 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2012 여수엑스포에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로 치러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목포시 산정동 ↔ 신안군 팔금면, 도농상생교류 다양하게 추진

동장협의회, 신안 팔금면에서 이미용봉사 펼쳐

목포시 산정동 동장협의회가 도농상생교류 운동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지인 신안군 팔금면을 찾아 이미용봉사를 펼쳤다.

목포시 산정동 동장협의회와 신안군 팔금면 이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축제 방문,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는 가운데,

지난 29일 미용실이 없는 팔금면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용봉사를 하며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박희숙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가며, 양 지자체간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주)지리산리조트, 100억 원 규모 가족호텔 설립 투자협약 체결

가족호텔 및 야영장, 골프연습장 등 관광시설 투자

구례군과 (주)지리산리조트는 6월 30일 군청 군수실에서 100억 원 규모 가족호텔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김순호 구례군수, 김수철 구례군의회 부의장, (주)지리산리조트 양철진 대표이사, 박영래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주)지리산리조트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구례군 광의면 소재의 KT지리산수련관을 매입하고, 골프연습장, 수영장, 야영장 등을 갖춘 가족호텔로 탈바꿈시켜 올해 9월 개장할 계획이며, 화약사와 지리산역사문화관 등과 연계한 지역 대표 숙박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가족호텔 운영에 따라 3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뿐 아니라, 화약사권역의 체류형

관광객 증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철 군의회 부의장은 "화약사 권역을 대표하는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민이 시설을 이용할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지리산리조트의 양철진 대표이사는 "지역과 함께하는 가족호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민 우선 채용과 농특산물 이용,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진도군이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이 1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최고 3,000만원 이내...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

5년 이내로 보증 한도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다.

신청자가 직접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으로 방문·접수해야 하고 매주 목요일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화순광업소 118년 여정, 역사 속으로...

30일 오전 종업식 거행

화순 건설에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다짐했다.



구북구 군수 "폐광이 화순의 새 출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북구 화순군수가 30일 오전 화순광업소 종업식에 참석하여 정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대체산업 발굴에 전력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구 군수는 "화순광업소가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라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특히 화순광업소 광해 복구 사업과 관련 "갱내에 물 채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내 1호 화순광업소가 역사의 한 편으로 물러나는 마당에서 구 군수 표정은 시중 비장함이 묻어났다.

화순광업소는 1905년 광업권을 등록한 이래로 산업의 최일선에서 전국 각처에 석탄을 공급했다. 생산량이 정점인 1989년에는

1,600여 명의 직원들이 70만 5천 톤의 석탄을 채굴하여 강원·삼척·영월 탄광과 함께 전국 4대 탄광으로 손꼽힐 정도로 광주·전남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80년대 모 기업 회장(한0그룹 정00)이 정치권력과 손잡고 화순탄광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광업소 노조원들이 버스를 타고 울라가 상경 투쟁 끝에 화순광업소를 지켜낸 일화는 화순광업소가 화순 사람들에게 있어 생계의 터전이자 정신적 구심체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화순군은 현재 폐광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의 매입을 위한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폐광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3개 시·군(화순, 태백, 삼척)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조기 폐광을 조건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전업 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기 폐광 특별위로금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화순군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진행되는 광해개황조사 및 광해복구사업에 화순광업소 시설을 잘 아는 현직 종사자들의 참여를 건의하여 고용이 연계되도록 요구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광업소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은 용역 진행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평생 고된 채탄작업을 통해 국가와 화순경제에 이바지한 광산근로자들이 충분한 지원과 예우를 받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폐광대책을 마련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 군수는 118년 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광부들을 위로하며, "폐광은 끝이 아니라 화순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장흥군, 부부 나눔리더 1·2호 탄생

넉프만 대표 김중근·박윤희 부부와 제이디자인 대표 주형진 부부가 30일 '장흥군 나눔리더 캠페인'에 가입했다.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은 전남 사랑의 열매에서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 진행하는 모금 사업이다.

개인 기부자가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 일시 기부 또는 약정기부한 사람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김중근 대표는 장흥군 최초 부부 나눔리더로, 주형진 대표는 장흥군 두 번째 부부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김중근 대표는 2007년부터 기부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모임인 애나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2021년에는 기부와 선함으로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배우자 박윤희 넉프만 공동대표도 2019년 애나소사이어티에 가입해 부부 아너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제이디자인 주형진 대표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김중근, 박윤희 씨는 장흥군 나눔리더 9·10호, 주형진, 이현정 씨는 11·12호로 등록됐다.

김성정 장흥군수는 "지역사회 리더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중근 대표와 주형진 대표 부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장흥군 나눔리더 릴레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원/기자



강진군 만다비체육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강진군은 지난 28일 '강진군 만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진군 만다비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83억원(국비 30억 원, 군비 5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2,000㎡ 규모에 실내체육관, 운동처방실, 장애인용을 위한 프로그램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이다.

군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생활활착형 만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종합운동장

남측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3개의 서울 소재 건축사무소를 포함한 총 7개 건축사무소가 참가했으며, 대학교수 및 건축전문가가 포함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통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5년까지 강진군 만다비체육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며, 장애인

을 위한 체육관과 재활을 위한 운동처방실 및 프로그램실 등 확보로 장애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캐나다 산불진압 위해 9,800km 거리 출동하는 소방관들과 뜨거운 악수 “자랑스럽다. 다치지 말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캐나다 산불진화를 돕기 위해 7월 1일 출국을 앞둔 강원소방 소속 진화대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정부는 퀘벡 주정부로부터 파견요청을 받고 7월 30일까지 150명의 진압대원 지원 파견을 결정, 강원소방본부에서는 33명의 대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 출국하여 2일 안전교육을 받은 후 3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불 진화에 나서게 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소방본부장에게 출국 전 준비상황과 도 소방대원이 투입되는 지역의 현재 상황과 임무, 숙영시설 등을 꼼꼼히 질문했다.

김지사는 “지난 4월 강릉 산불 발생시, 강원 소방의 진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기도 했고, 작년에는 울진 산불 진화에도 투입이 됐어서 우리 소방대원의 역량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전북에 제설차량을 지원한 적 있는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 9,800km 먼 이국땅에 가는 것이 사실 걱정이 앞선다”라고 하며,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의 안전이다, 8월에 귀국할 때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먹으며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며, 파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부장에게는 국제 임무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쳐 국위를 선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마지막으로 대원들과 한명씩 직접 악수를 나누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출국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캐나다의 상황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하겠다” 라고 하며,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5월 초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6월 초 동부까지 번져 현재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 9,800km 먼 이국땅에 가는 것이 사실 걱정이 앞선다”라고 하며,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의 안전이다, 8월에 귀국할 때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먹으며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며, 파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부장에게는 국제 임무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쳐 국위를 선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마지막으로 대원들과 한명씩 직접 악수를 나누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출국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캐나다의 상황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하겠다” 라고 하며,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강원도, 7월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및 여름선물 3종 세트

할인을 7%, 80억 원 발행(1인 구매한도 30만원)

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의 초성 “ㄱ”에 “7=행운”의 의미를 담아 7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및 다양한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특별판매는 할인율 7%, 1인 월 구매한도 30만원으로 80억 원 발행규모이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통해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소진 시 종료된다.

또한, 국내 제1의 여름철 휴가지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시는 피서객들과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행사도 마련했다. 첫째, 7월 모바일상품권 20만원 이상 결제고객 중 777명을 추첨하여 1~2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둘째,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강원상품권을 애용하여 주시는 단골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누적 사용 상위 77명에게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을 준비했다.

셋째, 지역특산물,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우리도의 대표 온라인몰인 강원더몰과 강원곳간에서 7월 한 달간 상품권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777명을 추첨하여 3만원 상당의 특상품과 5천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특급 경품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몰 상품권 감사행사는 8월에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도 사회적경제와 상품권유통팀장은 “이번 행사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여름휴가철을 맞아 우리도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라는 마음으로 강원상품권을 마음껏 애용하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7월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발행일시: 7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발행규모: 80억 원

구매한도: 1인 월 30만원

할인율: 7%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경제 활성화 기대감 ↑

분양률 90%, 기업 입주 활발!

태백시 동점산업단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경제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장 가동률 향상과 공장 건축 착공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동점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0%로 분양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이다. 총 16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8곳은 330억 원 규모로 공장 가동(5개소) 및 착공(3개소)을 진행 중이다. 또한, 추가로 2개 기업이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이 외에도 5개 이상의 기업이 동점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시는 추가 부지확보 시 입주 적정성 심의를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 중 하나는 태백시의 기업 지원제도이다. 시는 전 면적의 대부분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이고, 해당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조건 충족 시 부지매입비의 50%와 설비 투자보조금의 30%까지,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다.

시는 더 나아가 기업 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8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폐광지역 기업 생산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대상의 의무 구매비율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정부에 건의 안전으로 상정된 바 있다.

또한, 시는 이차보전금과 물류보조금의 지원 비율 상향과 관내 기업의 물류수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걷기 여행 명소 ‘치악산 둘레길’, 2,000번째 완보자 탄생

완보자 허진희 씨, 완보 인증서 및 기념품 수여

치악산 둘레길이 개통 2년 만에 2,000번째 완보자를 배출했다. 치악산 둘레길은 역사·문화·생태 자원이 어우러진 길로, 치악산 둘레를 따라 11개 코스 약 140km로 조성됐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대표 걷기 여행길로 개통 2년 만에 73만 명이 방문했다.

이 중 치악산 둘레길 140km를 완보한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원주에 거주하는 허진희 씨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허진희 씨에게 2,000번째 완보 인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허진희 씨는 ‘원주시 SNS 서포터즈’와 ‘치악산 둘레버스 인솔자’로 참여하는 등 원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21년에는 미리내도서관 1기 서포터즈로 활동하여 모범 시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00명의 완보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 1,036명, 여성 96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7명, 40대 232명(11.5%)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1,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0명, 서울 297명, 기타지역 267명 순이었다.

완보자 중 타 지역 거주자가 43.2%에 이를 만큼 치악산 둘레길이 전국적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둘레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국에서 손꼽는 걷기 여행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속초시, '민선 8기 출범 1년' 미래 100년의 기틀 마련

시승격 60주년 맞아 미래 청사진 담긴 '미래비전 2030' 구상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속초시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성과와 반성을 통해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한편, 미래 청사진이 담긴 미래비전 2030을 준비하는 등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상생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클린도시’ ‘다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등의 6대 시정방향을 기반으로 출범한 민선8기 이병선호는 지난 1년 동안 향후 시정 핵심과제의 추진 동력을 준비하는 등 매우 숨 가쁜 해를 보냈다.

가장 큰 성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역세권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등 속초시 미래 100년을 이끌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속초시 대변혁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장 기틀을 마련한 점을 꼽고 있다.

이렇듯 지난 1년이 속초시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향후 속초시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먼저 △생활인구 20만 명 달성 △관광객 4,200만 명 유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시민행복지수 제고 등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미래 청사진 ‘미래비전 2030’을 완성해 이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스마트하고 콤팩트한 명품도시 이른바 NSC(Natural Smart City)구상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적기 완공과 그에 따른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통해 속초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도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며, 낙후된 설악동의 재건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과거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였던 설악산의 명성을 되찾는 한편, 하늘과 땅, 바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넘보는 명품도시로 재탄생한다는 각오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반 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속초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1963년 1월 1일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준비된 60개의 사업과 60개의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이루어 낸 6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재도약하는 속초상’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와 700여 속초시 공직서는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기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정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하나되어 시민 모두가 꿈꾸고 희망하는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 밝혔다.

이등원/기자

양양군, 내일 남대천 풍당풍당 물놀이장 개장



양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남대천 ‘풍당풍당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놀이장은 어린이 물놀이장(1,070㎡), 유아 물놀이장(106㎡)과 경관(야간)분수, 그늘막 쉼터, 샤워장, 탈의실, 수변 스탠드 등의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아이들이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최대 수심이 30cm 이하로 조성돼 구명장비에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양양 남대천을 찾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이용료, 샤워장, 탈의장 등이 모두 무료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매주 월요일 및 기상 악화시 휴장)이며,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클리닝타임이 운영된다.

또한, 분수대가 7월부터 8월까지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도 연장 운영된다.

군은 물놀이장의 관리와 청결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수중자동청소기를 가동할 예정이며, 이용객의 안전과 물놀이장 위생 관리를 위해 운영 보조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남대천 풍당풍당 물놀이장이 남대천을 찾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시원하고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북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본격적 준비 돌입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인 인가 받아, 조직위원회 출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 12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감사 2명을 포함하여 정치, 체육, 경제, 언론,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16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은 이창섭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7월 중 사무처를 발족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과 직제와 인력 등에 대한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이다.

특히,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에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7.26.~7.27.)에서 충청권 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

도와 협력하여 대회시설 및 인프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협력사업, 홍보 및 마케팅, 자원봉사 등 대회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2027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레이프파크 충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 속의 충청' 브랜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50개국에서 15,000여명이 참석하는 큰 규모의 국제종합경기대회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7년까지 경기 시설 등 인프라 조성, 경기프로그램 행사계획 수립, 선수단 입출국에서 의료·

안전,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대회개최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한편 "18개 종목중 9개 종목이 도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기장 관리, 유일하게 신설되는 청주 체조경기장, 충주 보조선수

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내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지역문화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천안의 희망을 만듭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 달려온 민선8기 시정 1주년 맞아



천안시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내일'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바쁘게 지나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시민의 일상이 희망으로 빛나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출범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문화, 도시기반 조성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며 시민들의 만족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시는 '수도권과 연결된 중부권 최대 산업집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도시'라는 천안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미래를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을 다졌다.

지난 3월 선정된 미래모빌리티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15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추진위원회 출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천안사랑카드 확대 발행,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새로운 미래먹거리 확보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또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비롯해, 시민이 여가를 책임지는 태조산 산림레포츠 시설과 태학산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했다.

다양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했다. 올해 최초로 선보인 대학 연합 축제인 '대학'과 전국적 축제인 '충청'을 통해 천안시와 충청도를 잇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흥타령축제를, 뽕밭데이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일상에 즐거움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힘썼다.

미래 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전 생애 맞춤형 돌봄'도 지속 실천해 나간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가 자라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찾아가는 육아 플래너' 등 천안형 출산·육아 정책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운동장 돌봄체계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올타리 등을 구축한다.

권역별 특화형 청년센터 확대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내일의 천안'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시립노년요양시설 건립 등으로 누구나 빈틈없이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시승격 60주년을 맞은 천안시는 그동안 탄탄히 정비된 체제를 기울여 앞으로 남은 민선8기에도 공직자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민선8기는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인 시기"라며 "지난 1년은 좋은 결실을 위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삼아 꽃을 피우고 다양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중국 서부 중심에서 '백제 문화' 알렸다

김태흠 지사,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한-중 합동공연 참석해 대백제전 홍보



충남도는 '2023 대백제전'에 대한 중국 현지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한 '도-쓰촨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에 앞서 청두시 진장호텔 축극장에서 열린 한-중 합동공연에는 김태흠 지사와 쓰촨성 문화여유청 관계자 등을 비롯해 청두 시민과 교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연극협회 흥성지부는 민간 예술 공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합동공연에서 전통 백제 의상을 선보이고, 충남전통문화와 스토리텔링 공연을 통해 2023 대백제전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했다.

김 지사도 백제 전통의상을 선보이는 공연 말미에 대백제전 홍보를 위해 직접 백제의상을 입고 나와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와 쓰촨성의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쓰촨성의 심장이자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인 청두에서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쁘다"며 "두 지역은 인연이 시작된 이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우며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첫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오는 9월부터 열리는 2023 대백제전에 여러분들을 공식 초청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들이 충남에 방문하신다면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그런 의미에서 쓰촨성 문화여유청과 오늘 공연을 선보이는 천극원을 공식 초청하겠다. 꼭 와주

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민들과 청두시민들에게 도와 쓰촨성 간의 끈끈한 우정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옛 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매결연 5주년은 서로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 우정의 토대 위에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높이 쌓아 올려 양 지역 교류협력력이 한-중 지방외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단에 경제, 대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한 만큼 이를 계기로 양 지역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연은 전통백제의상 공연, 축사, 충남전통문화 공연, 쓰촨 전통 공연, 2023 대백제전 초청 항공권 추첨, 충남-쓰촨 합동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푸릇푸릇 여름맛이 다양한 숲 체험 운영

새벽 산행 숲길 프로그램, 목공 체험, 여름방학 숲 체험 등

아산시가 7월, 8월 두 달간 여름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 프로그램으로는 나를 깨우는 새벽 산행, 영인산 힐링 숲 목공 체험, 여름방학(돌봄교실) 숲 체험, 후기 인증, 여름나기 비대면 숲 체험이 진행된다.

'나를 깨우는 새벽 산행(숲길)'은 매주 화, 수, 목에 진행되며, 새벽 시간 가벼운 트레킹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영인산 힐링 숲 목공 체험'은 평일에 성인과 가족 대상으로 운영된다. 성인용 나뭇잎 수저받침 만들기과 가족용 자연목으로 곤충 만들기 목공 체험을 통해 목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여름방학(돌봄교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8월에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으로 아동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어 관내 초등 학교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후기 인증, 여름나기 비대면 숲 체

험'은 후기를 작성한 산림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숲 체험과 꾸러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병주 산림과장은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산림교육문화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김원호/기자

민선5기, 임종식 경북교육감 취임1주년 기자 간담회

지난 달 28일 10시 50분, 경북교육청 웬비관에서 경북지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 제 18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의 경북교육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언론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호응과 경북교육을 널리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운을 떼면서 세계교육 표준을 위한 경북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했다.

이에 취재진은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경북교육이 나아갈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경북교육청의 주요 성과 중 먼저 2022년 주요 성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학생부 전국 1위 ▲경북 직업계고 3년 연속 전국 최고 취업률 ▲교육기간 최초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부문 행안부장관상 ▲기록관리 기관평가 2회 연속 최고 '가'등급 ▲감사활동심사 최고 'A'등급 ▲학교급식 우수사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학교 전국 15교중 3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평가 최우수 ▲비상대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전국 최고 전국 최다 입상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우수기관 ▲제103회 전국체전 역

대 최고 성적 ▲교육정보화연구대회 16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 됐다.

2023년에는 ▲2023학년도 고입전형 분석결과 타 시도 유입 학생 4.7배(1,393명),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41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 ▲전국 최초 학과어교육센터 개관, ▲전국 최초 인공 지능 감시시스템(경북교육청 제 1호 특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대 최고(금4, 은42, 동48), ▲경북교육청 구미발명교육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2년 연속 전국 최고 발명 교육센터 선정, ▲전국 최초 모든 학교에 119비상벨 설치 사업 시행, ▲6.25전쟁 정전 70주년,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추진(4권역), ▲학교지원 종합자료실 130만부 돌파 등 지난 1년간 취임 이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들바탕으로 경북교육청 향후 추진방향은 세계교육의 표준(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경북교육청이 세계교육을 앞장서 끌어나갈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실현 의미)인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천에 두고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혁신 추진에 목적을 뒀다.

이를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1단계(2023년) 기반 조성/발굴, 2단계(2024년) 도입/시범운영, 3

단계(2025년) 확산/정착, 4단계(2026년) 성숙단계를 통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계획으로 이 세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신리·융합·학습으로 추진 전략은 적극 이행을 위해 신규 교육정책 적극 발굴과 민·관·산·학의 협력 시스템 운영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학생안전 관리 우선과 애지일(Agile)방법론을 도입해 나갈 전략이다.

이 세계교육 표준을 위한 경북교육 정책은 전문감시단 운영,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운영,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 학생건강 체력향상을 위한 통합신체활동 지원, 사이버독도학교 세계화 사업, 인공지능 활용 플랫폼, 천년의 수도학교 국제교류 네트워크 운영, 글로벌 교육협력 전문기관 활용교류 강화,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북국제교육포럼, SW-AL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 글로벌 경북교육 누리집 운영, 다문화향 수련과정으로 화랑정신 세계화, 경북형 과학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다문화 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운영 사업, 도서관 인문학! 선비정신의 세계화를 이끈다, 즐거운 감동·깨달음을 찾는 다문화 가족 해양안전체험, 경북 학생 미디어아트 컨버전스관 글로벌 사업의 22개 사업중 11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됐다.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 추진은 실생활 연계 교육을 통한 합리적 경제생활 습관/경제적 사고력 함양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소양 양성을 위해 경제교육 교수, 학습 자료 보급,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서비스 운영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 운영을 추진한다.

▲사이버독도학교 세계화 사업 추진은 독도 바로 알기를 통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고급단계에 영문 사이버 독도학교 운영, 맞춤형 학습 운영하고 독도교육 올림피아드를 확산, 사이버독도학교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사업이다.

▲학생 해외 봉사활동 추진은 타 국가의 사랑과 문화를 이해·존중하는 글로벌 리더의 역량 함양과 경북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나눔과 배려 실천으로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고자 자기 성장과 인류애 함양을 위해 사업을 추진 한다.

▲인공지능 활용 플랫폼 'G-시랩, 구축은 경북교육 구성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제고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및 업무 개발, 인공지능 기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통한 경북교육력을 제고 하기 위해 추진한다.

▲천년수도학교 국제교류 네트워크 운영은 천년수도 경북부를 품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 교류 활성화와 세계 천년수도 소재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 및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내외 천년수도 소재 학교간 다양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 교육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키 위해 경북 직업계고 충원을 제고/지역 산업 노동 인력 제고와 우수 유학생 유치/재용, 정착을 통한 지방 소멸 문제 해소, 그리고 글로벌 교육과정 수출을 통한 경북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국제사회에 공헌한다.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ICT/원격교육 선구국가로서 교류협력국에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ICT활용 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한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경북국제교육포럼 개최는 경북교육 중심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교육 현장 구성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교육 문제 해결 초석을 마련하고 정책 연구 및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해 경북형 미래교육 모델로 경북교육의 세계교육 표준화 실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SW-AI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의 교육용 서비스를 활용한 경북교육의 혁신성을 홍보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경북 학생미디어아트 컨버전스관 글로벌화 사업 추진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제작과 예술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신개념 디지털 공간 구축으로 창의적 경험 사유와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 및 예술적 원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이처럼 세계교육의 표준은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이 돼 경북교육청이 세계교육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역할을 하겠다는 임종식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적인 교육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임종식교육감은 지난 1년간 성과발표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한 후, 이어진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이 어느것 하나 막힘없이 조목조목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경북교육감이 되어 했는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어 경북교육의 미래는 더욱 탄탄대로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란 확신을 가지면서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실생활과 연계된 경제교육으로 삶의 힘을 키운다.

미래의 경제 주체를 위한 풍성한 경제교육 운영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합리적 경제생활 습관 및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운영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운영 ▲찾아가는 경제교실 운영 ▲경북 학생 경제퀴즈 한마당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 운영 ▲경제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이론 중심 경제교육 보완을 위해 실생활과 연계된 학생 맞춤형 주제를 선정, 10차시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교육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운영'은 팀당 100만 원을 지원해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 무역활동 등 특색 있는 주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경제적 민주시민이 되는 역량과 미래 경제 소양을 키워나가고 있다.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운영'은 신청한 학교가 버스를 타고 DGB금융체협파크와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방문해 체험교육을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해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찾아가는 경제교실 운영'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면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24팀에서 올해 789팀이 참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경북 학생 경제퀴즈 한마당'은 지방보조사업으로 경북 서남부권 지역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대회를 열어 구미신명중 3학년 박미소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골든벨을 울려 경북교육감상(대상)과 부상을 받았다.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 운영'은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준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지역 특산물 관련 제품의 생산과 유통, 지역 경제 관련 기관 체험 및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제 소양과 함께 지역 사랑을 함께 키운다.

경북교육청은 이 밖에도 학교 현장에

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사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경제 소양 함양과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과서로만 배우는 이론 중심의 경제학이 아닌 시대 변화에

발맞춘 실생활과 연계된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체가 될 우리 학생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경제교육 운영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상주초 교직원,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상주 공검초등학교는 6월 28(수) 오후 2시 체육관에서 상주소방서 강현모선생님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학교 내 응급 상황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강화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였다.

강 선생으로부터 심정지 환자 응급 처치법을 이론 및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배운 후 심폐 소생술(CPR) 실습과 기도 폐쇄 실습을 하였다. 4팀으로 나눠 실습용 마네킹과 자동제세동기(AED)를 한 개씩 배당해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의식확인-도움요청-흉부압박 30회), 자동제세동기의 작동법까지 익히는 과정을 반복 연습을 했다.

참석교직원들은 보기에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습을 해 보니 힘도 많이 들고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영·유아의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도 실습하였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

했을 때 최초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차후 뇌 병변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으며, 이어

뇌경색, 협심증의 전조 증상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고 딱이나 사망 등 목에 이물질이 걸려 질식사 위기에 처했을 때, 취하는 하임러히 요법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범을 보여 주었으며, 참석 교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 이날 심폐소생술의 체계적·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한 귀한 시간이 됐다.

석장근 교장은 "심폐소생술을 한두 번 실습해서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니,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여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이산초, 물놀이 체험학습 실시

이산초등학교(교장 서향숙)는 지난 달 30일(금),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하이원 위터월드에서 물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물을 가까이하는 여름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물놀이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익히는 수상안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가기 일주일 전부터 물놀이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 체험장에 도착하여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몸을 물에 적시는 등의 준비를 하고 물놀이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파도풀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각종 시설을 이용해 신나게 놀다가 체온이 떨어지면 스파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물놀이하는 방법을 익혔다.

체험활동을 다녀온 4학년 박○○ 학

생은 "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물놀이를 해서 정말 즐거웠다. 안전수칙을 실천하면 물놀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안전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특강에는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부이사관이 나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 팀장이 'AI 코스웨어,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미래 교육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과 강사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급속하게 발

전하는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와 교사의 역할 변화를 촉진할 방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종환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전 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등 첨단 에듀테크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학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교사 32명으로 팀을 꾸려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 설계 가이드북' 개발에 나서 오는 9월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선도 교사로 구성된 '교과별 디지털 수업 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도 지원할 예정이다.

송준진/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분야연구성과전시회개최

과기정통부,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서울 과학기술총연합회관(이하 '과총회관')에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수소 주요기업의 기술동향과 그간의 수소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

세계 탄소중립 대전환기를 맞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폭증하여 국가 간 재생에너지 교역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소가 재생에너지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최근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발표('22.11월, 수소경제위원회)하고, 이어서 수소기술을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로 선정('23.2월, 비상경제장관회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오늘 산·학·연·관 수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수소분야 출연연 및 주요 민간기업의 향후 R&D 방향을 공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간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략적으로 수소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추진방향'을 통해, 국정과제 및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 수소

중점 연구실'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선별하여 수소분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은 ①대학, 출연연 내 대규모 조직(연구실·연구단·연구센터)이 경쟁을 통해 선별되면, ②수소분야 연구개발(R&D) 국책과제 수행을 통한 수소분야 국산기술의 수장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국책연구 과제 수행, 소속기관 재정지원, 기술수요기업 후원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획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마련된 수소분야 국가 연구실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 제도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마친 뒤, 제도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전담기관 지정 공고(7월) 및 선정평가(8월)를 거쳐 9월에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신규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출연연 수소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R&D 방향' 발표를 통해, 그간 과기정통부 수소분야 기술개발 대표 성과와 R&D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출연연이 확보한 우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수소분야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연 협업 연구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미국 기업들과 청정수소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SK E&S는 '한-미 수소분야 협력양해각서(MoU) 참여기업 강연'을 통해 자사의 수소사업 비전을 소개하고, '26년경 본격 개시할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액화중성수 및 수소발전'에 이르는 국내 최초 청정수소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계획을 공유한다.

6월 30일 과총회관에서는 정부 지원 수소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수소 연구성과 전시회'(부제: "달성달성" R&D 성과 달성을 이루다(成))도 함께 개최됐다. 이는 분야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생명(바이오)분야, 5월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전시회에서는 ①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는 고체수소저장소재, ▲건물용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역상유기수소운반체(LOHC) 핵심원천기술,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모델 및 연구단 개발소재 및 부품,

②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의 ▲다차원 산화물 기반 양방향 수전해 기술 시연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재생에너지 이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 ▲양방향 고온수전해-연료전지 셀/스택,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구성,

③한국재료연구원(KIMS)의 ▲비극금속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 수소생산 기술, ④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태양전지-전해조 일체형 물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총 11개 주요 그린수소분야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형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 대신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수소 기술 정책 및 사업 방향 설정에 있어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R&D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선별 및 제도 개시를 통해 수소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충북도,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회 '지역혁신과 평생교육'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회, 충주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 기여의 장 마련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김인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30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교육컨설팅고령학회, 한국평생교육융합학회, 한국미래융합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전국 60여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요 후원으로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LINC 30사업단, 대학일자리개발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주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동덕여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학교법인 여도학원, (재)노사별전체단, 미림미디어랩(주), 업사이클창작기술협동조합, (주)아라움, (주)타임커뮤니케이션, 키나, (주)아이즈업 등이다.

지역혁신과 평생교육(Regional Innovation & Lifelong Education)을 주제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제도약 방향,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취창업 일자리 창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지산학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혁신 평생교육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김영한 충청북도 도지사는 '중심에서 대외 총칭'이라는 특별 기조 강연으로 충북의 지역혁신 계획을 공유했다.

학술대회는 김인숙 회장의 개회사, 윤순조 총장과 조길형 충주시시장의 환영사, 김영한 충청북도 도지사와 이종배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역혁신과 평생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후 키퍼런스에서는 3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 △지방시대와 지역 평생교육 △인재양성과 지역 평생교육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학술대회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주제별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재현 본부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RISE) 등 지역균

형 발전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혁신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키퍼런스 세션으로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 △지방시대와 지역 평생교육 △인재양성과 지역 평생교육에서는 포스트 세션으로 9명의 신진학자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11:30부터 15:10까지 13명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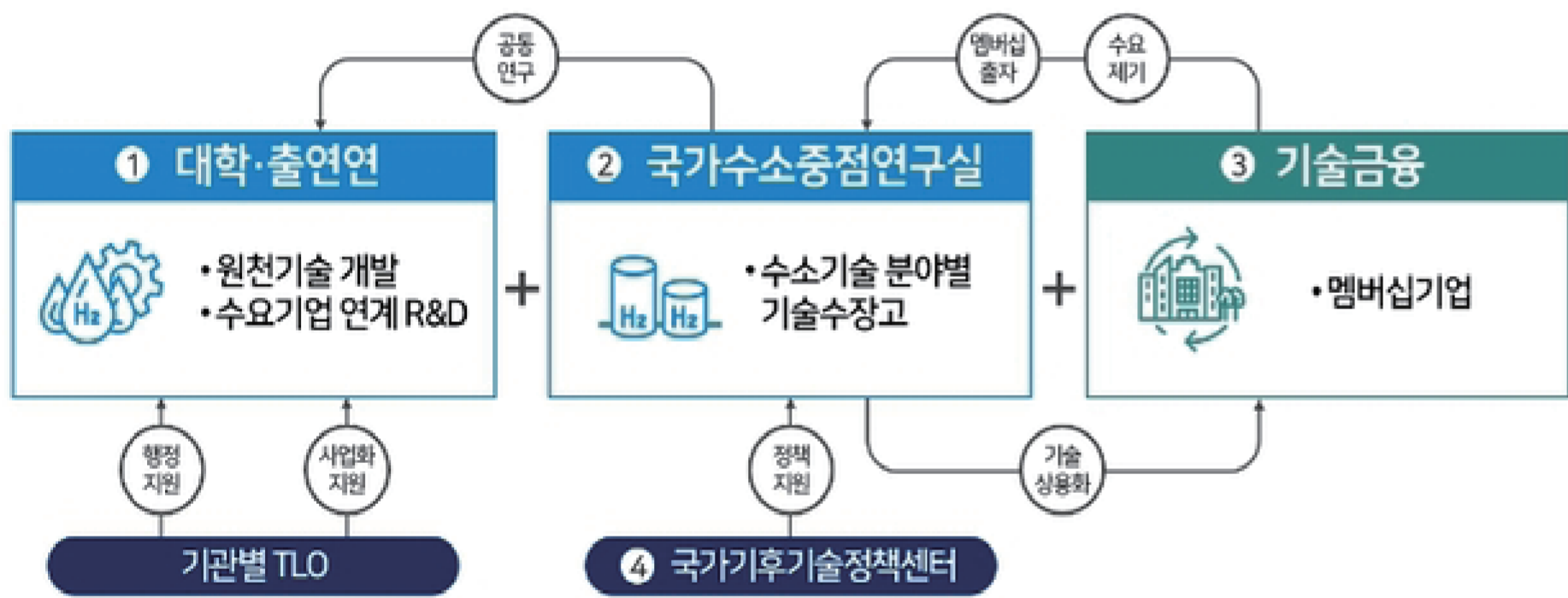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이상섭 교수, 양기훈 교수, 한상국 교수의 세션별 3개 주제에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의 실천적 논의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평생교육 대상을 수여하는 등 뜻깊은 시상도 이어졌다. 대학총장 부문(윤순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광역자치단체장 부문(김영한 충청북도지사), 의정 부문(이종배,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 부문(조길형 충주시장), 평생교육 공로 부문(최은실, (재)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헌신적이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의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평생교육총연합회 총대회장 김인숙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관련 시민단체, 현장활동가, 산업 현장전문가, 대학 및 학계 연구자, 지자체 및 공공분야 정책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들은 민간-산학의 공유와 연대를 넘어 지역 현장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 및 제도약을 위한 협력과 실천의 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특별 기조 강연을 한 김영한 충청북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혁신과 평생교육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충북에서 펼쳐진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생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이 전국에서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갰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청송사과
세계지명공원
산소카페
청송군

민선8기 1년 울진군, 희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다

군민과 함께 변화하고, 실천하는 군정 운영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성과 이뤄
관광객 1000만 시대 준비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실천



위기의 울진을 새로운 희망울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울진군 민선8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민선8기 지난 1년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경기 침체, 지방소멸의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경북 도민체전 성공개최 등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이에 따라 본지 취재진은 변화하고, 다가가며, 실천하는 군정으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민선8기 울진군! 손병복 군수와 울진군의 동행으로 만들어 낸 변화된 울진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 봤다.

▲ 먼저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 확보이다.

민선8기 최우선의 목표는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드는 것!

손병복 군수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가산업단지의 울진군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

먼저, 연구 중심이었던 기존의 '수소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로 전략적으로 수정하고, 수소 관련 기업들과 MOU를 맺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울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신항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평균 승인 기간에 비해 19개월이나 일정을 단축시키며 올해 6월 실시계획 승인을 이끌어냈다.

또한, 손병복 군수는 산불피해복구와 더불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대형 산불에 입은 큰 상처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400억원 규모의 '국립 산지생태원', 360억원 규모의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720억원 규모의 '경상북도 119 산불 특수대응단'을 유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경기에 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다음으로 울진 관광 1,000만 시대 준비이다.

'1,000만 관광시대 개막'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민선8

기 울진 미래 비전의 전략적 양대 축이다. 이에 울진군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중장기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자연 풍광 위주의 관광에서 해양레저, 로컬체류 등 프로그램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0만 관광시대 준비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공기 모범도시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숨, 울진'으로 관광 슬로건을 확정하고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울진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의 일환으로 울진군 일원에 워터파크를 포함한 600실 이상 규모의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며,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에 이어 '제17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제45회 경상북도 4H연합회 야영대회', '제33회 한국 입업체자 전국대회', '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 산업축전' 등 전국·도단위 체류형 행사를 유치하여 울진군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세 번째 보편적인 복지체계 기반 마련이다.

민선8기 울진 군정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복지이다. 이에 손병복 군수는 혜택을 받는 군민들의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해왔고, 지난 1년 적극 실현 시켰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경로당 운영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경로당 운영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각종 난임부부, 임신부에 대한 지원 및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기존 군수 관사를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돌봄을 위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 하였다.

또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을 확대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다.

기존에 예산 소진 시 까지만 진행되

던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네 번째 경쟁력있는 울진형 산업 기반 구축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민선8기 울진군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제구조이다.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울진농업이 새롭게 도약하여, 돈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울진 농업대전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울진농업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과' '계절 농산물 장기 보관용 대형 저온저장고'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울진군의 신선한 수산물이 대도시에 당일 배송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이다.

민선8기 손병복 군수는 군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수도·전기.

도로·안전 등 모든 군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며 군민이 최우선이 되는 군정을 실천해 왔다.

특히 지방상수도 공급 불가 지역 급수와 관련하여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료 지원, 6개 읍·면 15개 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물을 마실 군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비 12억원을 확보한 온정면 생활문화 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군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 등 북부 생활권에 2027년까지 3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후포면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여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

행정 실현이다.

울진군청 공무원들의 이름표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군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문구는 군민을 존중하고 섬기며, 군민에게 존중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8기 울진군정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군정을 실현 시키기 위해 민선8기 손병복 군수의 첫 행보는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으며, 이후 '군민 섬김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현재까지 37개 마을을 방문하여 189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41건은 완료, 62건은 진행 중으로 55%의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군수직통 문자메세지로 민원을 받는 '군수 직통 온라인 민원창구'는 지금까지 360건의 민원 중 완료 205건, 진행 48건으로 70%의 민원을 해결했다.

군민과 공직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굿모닝 목요특강'과 공직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혁신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실적에 연계한 인사시스템과 각종 포상제도를 마련하였고, 적극행정 실행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울진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조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수 직속의 정책홍보관을 신설하였다. 정책의 수립과 조정,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대안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주 군수 주재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울진 발전을 위해 멈춤 없이 달려왔다.

그는 이렇게 자신있게 지난 1년간의 업적을 얘기했다.

"지난 1년 울진군이 만들어 낸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희망과 번영의 울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면서, "울진군의 주인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울진군민 여러분임을 잊지 말고 신뢰와 지지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힘줘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현대엔지니어링**

산업」육성을 위한 상호

9. 27. (화) 16:30 | 현대엔지니어링 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더욱 늘어난 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지원 확대!

대구광역시, 전국 문화누리카드 상반기 이용률 광역시 1위 달성 하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장터, 이벤트 등 운영 예정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문화누리카드의 상반기 이용률이 전체 광역시 중 1위를 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순위권 편입으로 인해 더욱 확대된 사업 추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만 8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연간 11만 원을 지급한다.

대구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은 작년 동기 대비 9% 이상 높으며 상반기 광역시 중 1위로 순항하고 있다. (2023.6.27. 기준) 대구 지역 주관처인 진흥원은 카드 이용 활성화 및 홍보 실적을 통해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순위권이 통합돼 사업이 확장된 만큼 실적 제고를 위해 여러 기획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는 동성로 축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한시적인 식음료 가맹점 등록/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이끌어냈고 8개 구·군청, 142개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 대구 맞춤형 이용 촉진 방안을 세웠다. 하반기에는 순위권 편입에 따라 카드 이용 활성화, 신규 가맹점 확보 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확대된 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통합 이후 본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향유 취약 계층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50% 할인 혜택을,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기존 20% 할인에 더해 7월 8일(토)까지 진행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이용 편의를 위한 문화누리 장터 및 구매대행 지원, ▲잔액 소진, 신규 가맹점 발굴 등 다양한 이벤트, ▲지역 문화축제 연계 가맹점 확대, ▲가맹점 안내 책자 및 지도 제작, ▲E-그린 우편 발송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미라 시민문화팀장은 "수년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운영하며 문화향유의 양적 확대 목표는 달성해, 이젠 다음 과제를 향해 나아갈 차례다. 기초예술이 낯선 시민들에게 문화누리 카드를 통해 폭넓은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주)코엑스와 마이스 산업 활성화 MOU 체결

국내 마이스산업 주도 (주)코엑스와 협력, 지역마이스산업 활성화 신호탄 성공 노하우 공유, 교류 협력,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협약 권기창 안동시장, "향후 다각적으로 협력할 사업 발굴, 새로운 성과 기대해"

안동시가 글로벌 마이스산업 선도기업인 (주)코엑스와 맞손을 잡고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인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 이동원)은 지난 달 30일, 시청 소통실에서 (주)코엑스(사장 이동기)와 지역 마이스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유치,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과 안동의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마이스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문화관련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이스 지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코엑스는 1979년 개관 이래, 글로벌 전시회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를 두루 갖춘 아시아 마이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코엑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동과 서울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 마이스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다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정지역 청소년 마을축제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정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생회 임원, 청소년카페 원종점 프로그램이음 청소년 대표와 함께 지난 27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들을 위해 9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작년에 이어 5월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오정지역 마을축제 '오정스테이'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이루어졌다. 원종점 청소년어울마당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백진현)의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백진현)가 주관했으며, 청소년카페 원종점, 오정초등학교 학부모회/학생회와 오정마을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진행했다.

오정스테이 행사에서 플리마켓과 일일카페 활동을 통해 모은 90만원의 수익금은 부

천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는데, 이번 기부는 오정동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백진현 센터장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고 오정지역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계속하여 협력과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꼭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해표 동장은 "플리마켓 수익금을 바탕으로 장학금 후원해준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오정초등학교 학부모회·학생회 모두에게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오정마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

에게 장학금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천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이사 양선희)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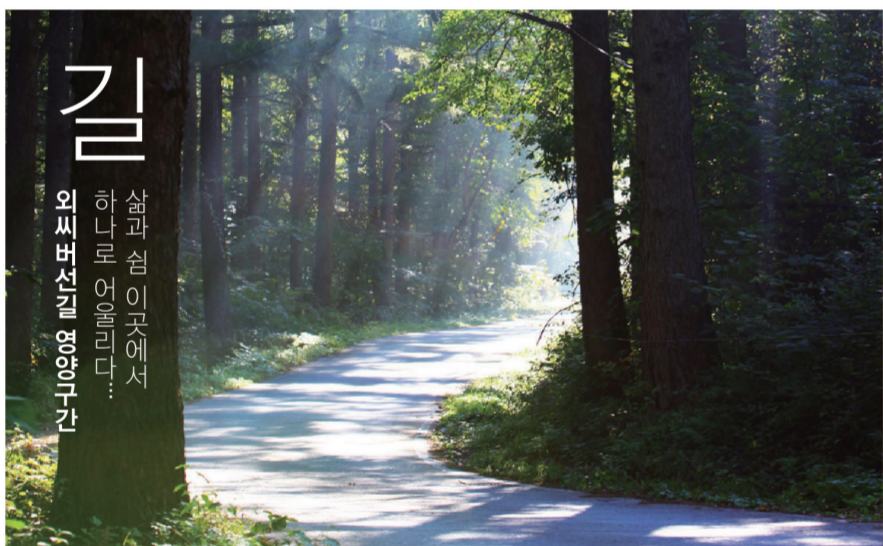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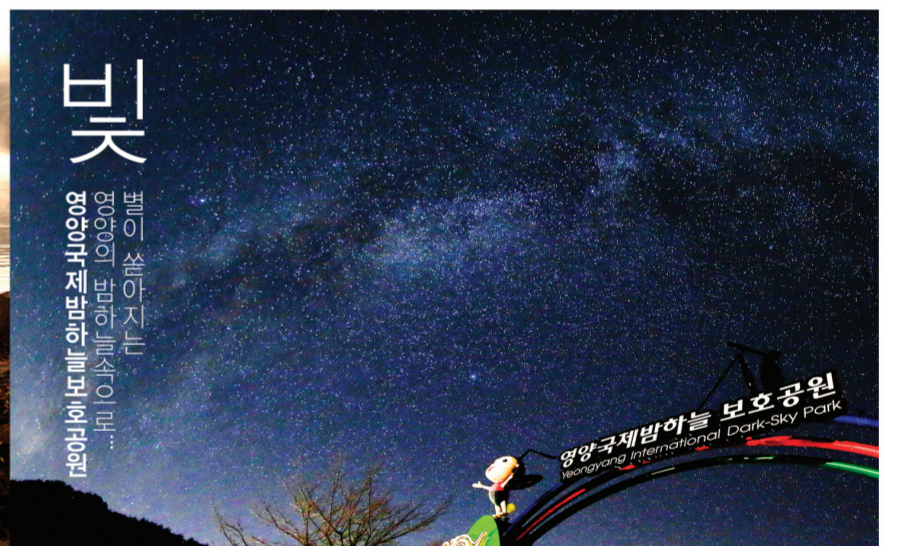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선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휘날리는
이슬과 바람을 따라...
영양고추밭이여! 영양
3000 원표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따라...
영양국제밤하늘보존지역
영양국제밤하늘보존지역



얼

시몬학의 대가
석문포정영양서원의 정취...
영양서지



맛

사백떡을 이어와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포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